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대원저수지 재해대비 훈련 실시

김철희 기자 | 승인 2026.05.18 14:31

태풍·집중호우 대비 위기대응 능력 강화

지난 13일 구미시 옥성면 대원저수지에서 저수지 붕괴 상황에 대비한 훈련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제공

[구미(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는 최근 구미시 옥성면 대원저수지에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상황에 대비한 '2026년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18일 지사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사면 유실과 붕괴 상황을 가정해 상황 전파, 응급조치, 부상자 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나창식 지사장은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chk1500@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